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공사 5년 만에 '첫 삽'

지하1층·지상4층 규모 내년 12월 준공 예정



여수시가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여수시는 오는 7일 오후 2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기공식을 열고 건설 시공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전남행정부지사, 박람회재단이사장

등 3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까지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4710㎡, 연면적 6238㎡,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청소년해양교육원을 세울 계획이다.

교육원 1층은 20m 5 레인 수영장 과 다이빙풀 식당, 관리사무소 등이 들어선다.

2층은 해양스포츠, 해양탐험관, 자연재난관, VR해상스포츠 구역으

로 나뉘진다.

해양스포츠 구역은 1, 2층이 연결 돼 있으며, 응급처치실, 수영장, 다이빙체험, 스쿠버다이빙이 진행된다. 해양탐험관에서는 여수반바다, 해양교육실, 선박 항해실을 만날 수 있다.

자연재난관은 4D 하프스쿨링상관, 지진대피체험교육실이 위치하고, VR해상스포츠 구역에서는 VR원드서핑, VR딩기요트를 즐길 수 있다.

3층과 4층에는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 다목적강당, 교육실 3개가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교육원이 개관하면 청소년 재난대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박람회장 민간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4년부터 청소년해양교육원 유치를 추진했다. 끈질긴 노력 끝에 2016년 국비를 확보했고, 2018년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교육원 유치부터 기공식까지 5년이 걸렸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 유동인구 300만 달성 관광발전 종합계획 발표



장흥군은 유동인구 300만 달성을 위한 관광발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관광마케팅에 나선다.

이번에 장흥군이 발표한 관광발전 종합추진계획은 크게 7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관광인프라 확충 ▲스포츠인프라 구축 ▲정남진로컬푸드 육성 ▲국내박람회 추진 ▲가게 축제 ▲홍보 마케팅 ▲스포츠마케팅 등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군은 7개 항목 28개 단위사업별로 민자를 포함 장단기 사업으로 1,936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개발 방침에는 ▲맑은 물 푸른 숲의 청정 농수산물을 활용한 건강관광산업 육성 ▲탐진강 등 자연 자원과 인종근 의사 사당 관광지원화 클러스터 구축 ▲문화·예술·문학을 활용한 고품격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스포츠산업 집중 육성 ▲전라남도도와 인근 시군과 연계한 광역관광 코스 개발에 올인 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복안이다.

군은 국내 유일의 안종근 의사 사당인 해동사를 관광자원화해 청소년들의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옛장흥교도소를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색다른 체험공간과 영화 및 드라마의 세트장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장흥의 보물인 탐진강엔 수변 도널길 등 테마파크를 만들어 정남진 민자를 포함 장단기 사업으로 1,936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연속 우수축제에 등극한 정남

진 장흥 물축제에 더욱 발전 시키고 2019년 산림문화박람회와 통합의박박람회를 함께 추진해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은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 체육인 교육센터 유치와 정남진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철인3종경기 등 전국대회 9개를 유치해 스포츠 메카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 실시간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 기능도 강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모바일스왑프 투어, 팸투어도 추진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참가 선수들을 겨냥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영암군, 2019년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영암군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접수하며, 총 25대에 해당 최대 167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주민, 사업자·법인으로,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2개월 내 출고 가능 차량에 한해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구매 지원 신청서를 영암군 환경보전과로 직접 접수해야 한다.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며,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하며, 2년간 영암군내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25대 이내로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선정하고 25대를 초과해 접수된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며,

추첨을 할 경우 추첨 일시는 3월 25일 오후 3시 영암군청 환경보전과 사무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류기봉 환경보전과장은 "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과 더불어 대기오염 측정망 신설 및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좋은 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군,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전남도내 1위

재정역량 10위 · 종합평가 12위 기록

완도군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회학회가 주관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82개 군 단위 중 완도군이 12위, 전남도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높이고 지방 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다.

이에 완도군은 재정 역량 10위, 행정서비스 18위, 주민평가 34위를 기록하며 종합 평가에서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평가 체계는 행정서비스 50%(사회 복지, 일자리 경제, 문화 관광, 안전, 교육, 지역 정보화), 재정 역량 30%(지체 세입 비율 예산 대비

재무 비율, 지방 공기업 부채 비율, 지방세 징수율, 세외 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 행정운영 경비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재정 성과)로 이루어진다.

20%는 주민 평가(설문 조사) 15%, 지방자치경영대전 5%(지자체별 특색 사업 평가, 수상 지자체가 점 부여) 등을 평가한다.

재정 역량 부분은 지난 2012년 이후 지방재무 제로화 달성을 위한 전 재정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경영상 경비 절감 노력을 통한 행정 운영경비 비율 최소화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 준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신우철 완도군수가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 간사,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1,540

여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한 바 있다.

한편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보건 복지 영역이 9위, 교육 영역이 16위로 나타났는데 군에서 민선 7기에 추진하고 있는 희망더하기 결연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도서지역 어린이집 지원 사업 확대 등 군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향상에 주력한 점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처럼 좋은 성적을 얻게 된 것은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공무원들과 군민 여러분들이 뜻을 함께 해주셔서 얻은 결과이다"며 "앞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행정서비스, 재정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모두가 잘 사는 완도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담양군, '귀농인 영농정착 교육' 개강



담양군이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한 '귀농인 영농정착 교육' 개강식이 7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열린다.

개강식에서는 이병창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담양의 농업 현황과 전망,

정책 등을 안내하고 채상현 연암대 교수가 성공적인 귀농·귀촌 전략과 마인드 확립에 대해 강의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담양에 정착하고 싶은 귀농·귀촌인과 담양에 관심이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

상으로 하는 귀농인 영농정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기초농반, 영농실습반, 시설원에반으로 편성해 교육 과정을 세분화했다.

기초영농반과 시설원에반은 영농 기초기술 습득, 산배 귀농인 영농현장 견학, 안정적인 귀농·귀촌 전략 원예작물 관리, 토양과 비료 등 기초와 현장교육을 병행하고, 영농실습반은 성공적인 귀농 창업을 위한 작목 선정, 파종, 관리, 출하 등 실질적으로 영농을 준비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이병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들에게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기술과 산배 귀농인의 어려움 극복과정을 들으며 자신감을 갖고 잘 적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찬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

장성군

장성찬디

장성찬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